

<p>빌립보서 서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도 바울이 A.D. 62 년경에 로마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서신이다. ●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여러 번 쓸 것을 보내 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 편지이며, 어떤 상황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의 기쁨을 누리라는 격려 편지이다.
--

1. 사실(Fact)	2. 의미(Meaning)	3. 적용(Application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(1:12-3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라 (1:20). ②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(1:27). ③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(1:28-29)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건강한 교회는 사람보다는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교회다. ● 복음은 우리가 하나되어 협력할 때 힘을 발휘한다. ● 고난은 제 2의 은혜이다. 그러므로 믿음은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까지 포함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우리 교회는 누가 존귀히 되는 교회인가? ● 온 성도가 한 마음,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가? ● 고난을 피하지 않고 잘 통과하여 받은 은혜를 나눠보자.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(2:1-11)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(2:6) ②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(2:7) ③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(2:8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예수님은 겸손히 자기 위치를 비우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대신 채우셨다.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나는 기꺼이 나의 야망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? ● 나는 주의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, 나의 일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가? (2:3-4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바울의 간증과 같은 간증이 있는 삶을 살라 (3:1-16)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예수를 만나기 전 육체를 자랑함 (3:5-6) (베냐민 지파,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,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고 새로운 삶의 목표가 세워졌다는 의미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배설물로 여겼는가? ● 이제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? 세상적 성공인가?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인가?

<p>율법으로는 바리새인, 열심히 교회를 박해)</p> <p>②예수를 만난 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과거에 자랑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 (3:7-8)</p> <p>③새로운 삶의 궤대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됨 (3:12-14)</p>		
<p>● 주 안에 서라 (4:1-9)</p> <p>①같은 마음을 품으라 (4:2).</p> <p>②주 안에서 기뻐하라 (4:4).</p> <p>③관용을 알게 하라 (4:5).</p> <p>④염려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(4:6-7).</p> <p>⑤배우고, 듣고, 본 바를 행하라 (4:8-9).</p>	<p>●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는 주 안에 서 있었다. 어떤 환경속에서도 주님의 사랑, 은혜, 자비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.</p>	<p>● 지금 내가 선 자리는 어디인가? 주 안에 서 있나? 아니면 주 밖에 서 있나?</p>
<p>●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 (4:11-13).</p> <p>①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라.</p> <p>②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.</p> <p>③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.</p>	<p>● 진정한 만족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지는 것이 아니다.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.</p> <p>● 비천에 처할 때 낙심이나 원망하지 않고 더욱 더 주님을 붙잡는 겸손이 자족이다.</p> <p>● 풍부에 처할 때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자족이다.</p>	<p>● 나는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고 잘 실천하고 있는가? 아니면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가? 아니면 아직 한 참 멀었는가?</p>